

慶熙大學의 敎養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②—

元 應 淳

(慶熙大 英語英文學科)

교수강의평가 實施事例

1. 한신大學의 敎授講義評價制
2. 慶熙大學의 敎養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3. 單科大學別 실시
4. 學科別 실시
5. 교수 個人別 실시 (1)
6. " (2)

1. 들어가는 말

‘93년부터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강의평가제 실시계획을 보류한다.” 이 내용은 작년 7월 경주에서 2박 3일 동안 열린 ’92학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에서 나온 상반된 발표내용이다. 전자는 토론회의 산물이고, 후자는 임시총회의 결론이었다. 조선일보 기자수첩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교수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제가 단 하루만에 백지화의 수렁에 빠졌지만 이는 분명 大學敎育의 質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임에 틀림없다.”

이미 미국의 로진 윌슨(Logan Wilson) 교수는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 『학문하는 사람』(*The Academic Man*, 1942)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적 조직으로서 어떤 대학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곧 교수의 책임과 임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평가이다.” 이 말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학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교수에 대한 業績評價는 교수(敎育)와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교수평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여 보편화된 교수강의평가제가 대표적이고, 연구평가는 논문과 저술 등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대학의 대부분은 후자의 연구평가를 위주로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교수강의평가제 실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실시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89년에 교수강의평가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90학

년도 1학기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양과목에 걸쳐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같은 교수강의평가제가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敎授講義評價制가 제기되는 배경

우리나라 대학은 대체로 구미대학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대학까지 올라간다. 이 볼로냐대학은 소위 길드(guild) 조직을 형성하여 오늘날과 같은 대학 형태를 이룩한 것으로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학은 그 당시 팽창하는 시민정신에 힘입어 학생의 힘이 강하여 교수초청과 같은 문제에 있어 학생들의 권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적 정신과 학문적 자유정신은 그대로 계승·발전되어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 사회정치적 경제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학생들의 大學內 改革運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들어와 사회·정치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개혁과 저항운동이 대학의 학내문제에 확산되어 대학행정에 대한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수의 講義評價制의 必要性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내에서의 교수의 기능과 역할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 관점에서 교수의 주요기능은 새로운 학문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고, 한편 학생의 관점에서 교수의 기능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전달이나 학생의 전인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은 교수의 기능이 연구와 논문발표에 집중되고 강의를 등한히 여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같은 학생들의 대학행정에 대한 참여와, 교수강의의 소홀과 등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대학행정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강의에 태만한 교수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강의평가제가 대학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공부(연구) 안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들 한다. 교수·학생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들의 논문발표나 저작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에서 연구하고 돌아오는 젊은 교수들이 새로운 학문분야에 대한 도전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일무사주의 풍토 역시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같은 풍토는 대학 교수사회의 승진제도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수는 한번 전임으로 선임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자연 승진되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니 누가 밤잠 설치면서 연구실을 지키고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약 20여 년 동안 S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는 교수로 알려진 한 노교수는 “우리나라 대학교수만큼 편한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고 자조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대학의 학문풍토에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의 강의 도중에 학생들이 뒤로 돌아 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교수의 강의 내용이 부실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항의의 표시였던 것이다. 이같은 학생의 강의 거부 의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가 제일 먼저 실시된 대학은 경희대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가 대학의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총학생회 산하 단체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다음의 글과 평가방법 등 실제의 결과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교심위에서 발간한 『교육백서 1』과 기타 자료집을 주로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 때는 1990년 1학기부터이다. 총학생회의 산하기구인 교심위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 현재 제 5차

교수강의평가제가 준비되어 6월에 실시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수강의평가제에 대한 많은 찬·반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는 중에 학교당국이나 교수협의회에서 이 제도의 실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실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경희대학에서 교수강의평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국내의 대학, 대학원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이와 비슷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여성학 관련 강좌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것은 이 대학의 여성학 교과과정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학부 여성학에 대한 교과목의 강의내용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평가를 알아내기 위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마다 실시되었다(1986~1988). 이 설문조사는 여성학 관련 강좌의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 여성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특정학문인 여성학의 연구목적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 강의평가가 갖는 독자적인 의의와 목적을 일컫내지 못했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 아래에서 총학은 학생의 정당한 學習權을 주장하며 10개 교양과목, 13개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했다. 무기명 설문조사로 실시된 강의평가의 내용을 보면 학문성취도, 교과목의 위상, 교수자의 인격, 교수법(강의방식), 강의내용, 학생들의 학습태도로 구성되었다.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2학기에는 여기에 6문항이 더 첨가되어 모두 1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3. 講義評價 실시사례 : 慶熙大의 경우

강의평가 방법으로 무기명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분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주관식 문항을 두지 않았다. 옳다와 그르다 또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흑백논리식 답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1학기에는 7점 분석표를, 2학기에는 5점 분석표를 사용하였다. 7점 분석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7점 : 매우 만족한다. 좋다. 긍정한다. 완벽하다.
 - 6점 : 만족한다. 긍정한다.
 - 5점 : 부족한 대로 만족한다. 노력을 보인다.
 - 4점 : 그저 그렇다. 타과목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 3점 :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 2점 : 많이 부족하다. 개선할 점이 많다. 부정적이다.
 - 1점 : 불만족이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많다. 개선해야 한다.
- (5점 분석표의 답항별 기준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한다.)

○ 강의 평가 대상과목 선정

1학기에 실시한 강의평가는 첫 실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양과목 중 '90년 초겨울에 진행된 교과개편시에 신개편된 과목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90년 1학기 강의평가 대상과목〉

- 교양필수선택—민족통일론(P, S, C, S 강사)
- 교양선택—인문 : 미학의 이해 (L 강사)
- 사회 : 북한정치의 이해 (P 강사)
- 정치경제학입문 (C 강사)
- 자연 : 환경오염 (M 강사)
- 여성 : 여성과 문화 (K 교수)
- 여성학개론 (M 강사)
- 여성과 법률 (K 강사)
- 성과 문학 (M 강사)
- 성과 사회 (S 강사)

2학기에는 1학기보다 과목 수를 늘렸다. 또한 분석방법도 1학기에 실시하였던 7점 분석표를 보완하여 5점 분석표로 대체했으며, 문항도 세부화하여 첨가하였다.

〈'90년 2학기 강의평가 대상과목〉

- 교양필수—국어(G, K 교수)
- 교양필수선택—민족통일론(S, J, C, S 강사)
- 교양선택—인문 : 철학의 이해 (B 강사)
- 미학의 이해 (M 강사)
- 사회 : 여성학개론 (H, K 강사)
- 자연 : 환경오염 (M 강사)
- 현대사회와 과학(K 강사)
- 생물의 세계 (Y 교수)
- 자유선택 : 여성과 문화 (M 강사)
- 여성과 법률 (S 강사)
- 성과 문학 (H 강사)
- 성과 사회 (M 강사)
- 연극영화론 (J 강사)

○민족통일론

- ☐ 강의 교수 : P 강사
- ☐ 평가 일정 : 1990년 1학기 5월 31일 오후 9,10 강의
- ☐ 평가 방법 : 무기명 설문조사
- ☐ 응답자 수 : 32명 (총 수강자 121명 중 26.4%)
- ☐ 응답 결과

1. 본 강의가 현재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점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극복방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6	7	
3.1%		9.4%	15.6%	15.6%	31.3%	25%	

♥ 결과 : <6> 그렇다

2. 교양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적 탐구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이 교양과목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6	7	
3.1%	6.3%		3.1%	12.5%	21.9%	53.1%	

♥ 결과 : <7> 완벽하다

3. 교육자가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은 올바른 인격과 자질일 것입니다. 대학 강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강의의 교수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6	7	
3.1%			18.8%	21.8%	21.9%	34.4%	

♥ 결과 : <7> 매우 만족한다

4. 본 강의의 교수자의 교수법(강의 방식)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6	7	
6.3%		6.3%	15.6%	28%	34.4%	9.4%	

♥ 결과 : <6> 만족한다

5. 본 강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부정							긍정
1	2	3	4	5	6	7	
3.1%		6.2%	9.4%	18.8%	37.5%	25%	

♥ 결과 : <6> 만족한다

6.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강의에 대한 학우들의 학습 분위기는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6	7	
12.5%	28.2%	15.6%	28.1%	12.5%		3.1%	

♥ 결과 : <2> 부정적이다

7. 본 강의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강의시간이 부적당하다.
-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 *현실인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교재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 *설명보다 토론식 강의가 되었으면 한다.
- *학우들의 수업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강의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민족통일론

- ☐ 강의 교수 : P 강사
- ☐ 평가 일정 : 1990년 2학기 11월 20일 오전 1,2 강의
- ☐ 평가 방법 : 무기명 설문조사
- ☐ 응답자 수 : 34명 (총 수강자 123명 중 27.6%)
- ☐ 응답 결과

1. 교양 교과과정(자유선택 포함)은 인문, 사회, 자연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적 탐구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본 과목이 이와 같은 교양 교과과정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8.8%	2.9%	14.7%	17.6%	55.9%	

♥ 오차 : -0.1% (소수점 2자리 사사오입으로 인함)

2. 본 강의에 대하여 당신이 생각하신 강의 내용과 실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강의의 일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불일치					일치
1	2	3	4	5	
2.9%	20.6%	23.5%	44.1%	8.8%	

♥ 오차 : -0.1% (소수점 2자리 사사오입으로 인함)

3. 한 학기 동안 진행된 본 강의내용의 수준은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음				알맞음	난해
1	2	3	4	5	
	14.7%	64.7%	11.8%	8.8%	

4. 본 강의가 당신에게 도움(사회현실 인식 및 극복에, 현실생활에, 지적 욕구에)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5.9%	17.6%	11.8%	47.1%	17.6%	

5. 본 강의 교수자의 교수법(강의방식)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5.9%	20.6%	26.5%	20.6%	26.5%		

♥ 오차 : +0.1% (소수점 2 자리 사사오입으로 인함)

6. 본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주교재, 부교재)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11.8%	14.7%	32.4%	23.5%	14.7%		

♥ 오차 : +0.1% (소수점 2 자리 사사오입으로 인함)

7. 본 강의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들(중간, 기말시험, 리포트, 수시평가 등)의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8.8%	23.5%	26.5%	41.2%		

8. 교육자가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은 올바른 인격과 자질일 것입니다. 대학 강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강의의 교수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5.9%	23.5%	22.4%	38.2%		

9. 본 강의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성실성(강의준비, 강의진행, 강의시간)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5.9%	17.6%	44.1%	32.4%		

10. 본 강의를 수강하는 당신의 강의준비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26.5%	52.9%	11.8%	5.9%	2.9%		

11.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강의에 대한 학우들의 학습 분위기(태도)는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긍정	
1	2	3	4	5		
11.8%	44.1%	23.5%	5.9%	11.8%		

♥ 오차 : +0.1% (소수점 2 자리 사사오입으로 인함)

12. 본 강의가 진행되는 강의실에 비추어 볼 때(또는

강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수강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음		적당			많음	
1	2	3	4	5		
	14.7%	44.1%	20.6%	20.6%		

13. 본 강의나 교수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체계적인 강의

*학우들의 태도가 조금은 분성실한 것 같다.

*학우들(을) 집중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민족통일론은 교양필수가 되어야 한다.

*과별토론식의 강의는 상당히 폭 넓은 주제(페레스 트로이카, 통일독일, 우리의 통일)로서 의견이 교환되었음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발전시켜 다음 학기에도 그런 식의 강의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의시간이 늘어났으면 한다.

○총학생회 교섭위 분석평가

<문항 1> 결과(5) 매우 만족한다

분석 : 학생인만의 국가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제반 사회현실에 진실하게 밀접히 다가서고 있는 선진적 사회학에 대한 교양과정의 흡수가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설문결과, 근본적 당면과제이며 우리 국가사회가 봉착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끈이 되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및 학문적 수용욕구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2> 결과(4)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을 표하고 있으나 평균점 이하의 응답자도 20% 나타남으로써 강의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교수자의 강의방식에 대다수가 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강인원이 너무 많아 뒤에 앉은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잘 듣지 못한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있다.

<문항 3> 결과(3) 알맞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알맞다고 응답함으로써 폭 넓은 주제를 다룬 교수자의 강의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4> 결과(4) 만족한다

민족통일론 강좌가 학습자의 인식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물음으로 학습자의 지적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체의 93% 이상이 평균점 이상을, 60%가 만족한다 이상을 지적함으로써 현 교과체제에서 가장 시사성을 띠는 당과목에 대다수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현실과 밀접한 정치·사회적인 학문에

대한 학우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 5> 결과(5) 매우 만족한다

교수자가 강의비용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습자가 그 교수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6> 결과(3) 보통이다

교재선택에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7> 결과(5) 매우 만족한다

평가(시험)의 방법이나 공정성에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8> 결과(5) 매우 만족한다

강의를 통한 올바른 신뢰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항 9> 결과(4) 만족한다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성실성을 묻는 물음이다. 올바른 강의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평가이다.

<문항 10> 결과(1) 매우 부족하다

학습자의 수강준비 태도를 묻는 물음으로 올바른 강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교수자의 인격, 성실성, 평가방법, 교수법, 강의 내용 등에 대해 모두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데 반해 학습자 자신의 준비상태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참여 의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11> 결과(1) 매우 불량하다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묻는 물음이다. 문항 10의 결과를 반영하듯 학생들의 적극성이 부족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12> 결과(5) 매우 많다

현재 수강인원이 학습하기에 너무 많다는 지적이 대부분으로 분반 등 대책이 요구된다.

<총평>

교수자의 자질면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만족을 표하고 있으나 강의방식 및 교재 등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교수자가 강의에 익숙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의 강의진행 능력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며 보다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재의 선택이 교과과정에 알맞게 쉽고 체계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민족통일론 강좌가 1학기 강좌로 시간이 축소된 때문인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분석되지는 않는다.

○교수자 의견

☑ 과목명 : 민족통일론('90년 1학기)

☑ 교수자 : P 강사

1. 강의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학교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이미 개강 2주가 지난 뒤였던 까닭에 체

계적인 강의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2. 특히 예정된 강의시간(화요일 1, 2교시)이 본인이 출강하는 다학과의 강의시간과 중복되어 부득이 시간을 변경(금요일 9, 10교시)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가 모두 금요일 5~8교시에 실험이 있어서 과목의 특성상 실험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실험을 중단하고 민족통일론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았으며(수강신청한 120여명 중 60, 70명 정도만 출석 : 강의시간의 변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감안하고 또 출석부가 늦게 나와 출석체크를 엄격히 하지 않았던 것도 출석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강의 도중 입실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업분위기가 매우 산만하였고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강의 배정이 일찍 이루어진다면 타학과의 강의시간 중복으로 인한 번거로운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 변동 때문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맞은 결석과 지각, 산만한 수업 분위기 등)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강의시간에 가능한 한 학생들의 행동을 중·고등학교에서처럼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생각이다. 수업시간에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으로 민주절서를 몸에 베도록 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개강 2주가 지난 뒤에 강의가 시작되었고 또 1주일에 2시간 수업, 한 학기 강의로 민족통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절개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통일론이 한 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학기 연속강의이므로 강의내용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민족통일 문제를 생활 속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4. 교재는 본인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흡족할 만한 좋은 교재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두 권의 책을 교재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추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판단하에 두 권의 교재 중 한 권을 선택하여 통독한 후 서평을 제출할 것을 과제로 부과하였다. 물론 교재의 내용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입생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교재로 선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과목명 : 미학의 이해('90년 1학기)

☑ 교수자 : R 강사

1. 기본적으로 교양과목의 선선헬지와 내용에 공간

하며, 장기적으로 교육의 전적 내용과 방향신정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리라 보이며, 타교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됨.

2. 평가제의 시도는 근본취지에 있어 공감하나 평가가 단기적인 방식을 취하고, 구체성이나 그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제멋되어야 하리라 봄. 특히 과목의 특수성, 수강생의 관심방향, 지적 수준의 차이(전공, 학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하내 전체 강좌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원칙적으로—할 것이나, 위의 문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없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미학과목과 관련하여 문항별(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점 인식, 극복방도의 관계는 물음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과목 자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문항으로 보임(현 수준에서 미학이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판단됨. 문화와 사회현실의 연관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 명료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나) 교수자의 교수법 문제—강사 자신의 전적인 문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다) 강의 내용 문제—사실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수법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는 것. 내용 자체보다는 미학이론과 구체적인 예술현상의 밀접하고 풍부한 연관의 드러임이 중요한 것이고 이는 교수법에서 해결될 사항. 내용에 대한 수강생의 구체적인 요구는 그때그때 수업시간중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라) 학습 분위기 문제—학생수가 너무 많아 집중도가 낮다(150명 이상 되는 경우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며, 분반이 더 바람직!). 1~4학년 공통이라 강의 대상의 지적 수준을 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2~3학년 기준이 좋을 듯하고, 전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리라 봄). 수강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토론회)의 개발이 요구되며, 각종 시각자료(슬라이드, 비디오) 활용도 좋은 것으로 보임(시청각교육원의 적극 활용도 하나의 방법일 듯).

☐ 과목명 : 미학의 이해 ('90년 2학기)

☐ 교수자 : R 강사

질곡 속에 배치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전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교심위의 평가제도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으나 첫 학기의 경우보다 질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점을 본인으로서는 띄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상 이러한 제도가 현행 대학의 율타리 내에서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리라 확신하며, 타교에도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

로 여겨집니다.

본 강사의 강의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커다란 편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서는 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며 다소 편차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1학기와 2학기 강의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소견서의 초점이 되어야 하겠군요(원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미학강의가 올바른 사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지적인 품성을 갖추게 하는 교양과목으로서 매우 지천하나 본인의 강의가 이러한 요구에 크게 공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교양과목에 대한 그와 같은 개념 설정에 근본적으로 깊이 공감하며 다소간에 부정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하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편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미학강의의 내용을 알차고 쉽게 강의하는 것은 여타과목과 동일하게 필수적인 요점이겠으나 본인의 지적·경험적 수준이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일단 인정해야겠다. 적어도 본인이 생각컨대 미학이란 학문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추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학강의의 충실함은 구체적인 예술현상에 대한 적지 않은 체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며 철학, 정치경제학, 문화이론 등 인접 분야와의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과목설립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기 어렵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학을 공부하는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계를 걸감하며 강의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

본인의 한계에 맞물린 문제로서 미학을 일단 M.L. 미학 혹은 주체 문제미학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실제 수강자들 가운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나), 미학을 세계관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하는 학생이 또한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든 실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것의 문제는 미리 선생이 강의내용을 1학기 전에 공고하고 학습방식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의 도입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라도 이러한 요구에 값하기 위해서는 강의방식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건전한 상식이라 하겠다. 강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적어도 토론 형식이나 사전 예습을 통해 발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은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강의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인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내용의 난해함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 교양과목이 갖는 한계로 보는 편이다. 실상 타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강의내용의 수준은 그다지 어리운 편이 아니라고 보며 많은 수강생(150~200명), 학년의 편차, 전공의 상이성, 수업분위기 등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수강생이 너무 많고 출석 체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출석부가 너무 늦게 나오에 따라 거의 한 단강은 수업이 안정된 리듬을 찾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수준차가 큰 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教授講義評價制의 타당성

오늘날 교수들 가운데는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체로 교수의 강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수의 사사로운 문제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기 쉽고, 자신의 성적의 우열에 따라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그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과연 학생들은 충실한 강의와 그렇지 못한 강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J.A. Kulik 과 W.J. McKeachie 는 학생변인과 강의평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학생변인 가운데 성별, 학년, 전공 등의 요인은 강의평가에 하등 작용하지 않는 반면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수나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 성향과 태도는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는 교수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싫어하는 교수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의평가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J.E. Ware 와 R.G. Williams 는 강의하는 사람의 표현력과 내용의 충실도를 적절하게 섞어 만든 4 종류의 비디오 강의자료를 만들어 말솜씨가 좋은 배우를 직접 강사로 등장시켜 수강생들에게 듣게 한 후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학생들은 표현력이 좋게 강의한 것을 그렇지 못한 강의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을 이들은

‘교육적 유혹’(educational seduction)이라 칭하면서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P.C. Abrami 같은 학자는 ‘교육의 유혹’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는가 하면, 또한 P.A. Cohen 은 메타분석을 통해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의 妥當度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는 강의평가의 타당성을 찾아내기 위해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가 교수의 강의효과성을 높이는 데 타당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제 강의평가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떠나서 앞에서 실시한 강의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강사)자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교수자들의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강의평가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적 내용, 방향설정에 있어 크게 기여하리라 여기고 있으며 타교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의견들이었다. 또한 총학생회 교섭위의 종합분석(각 문항별)이나 총평에 대해 대체적으로 公正性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에, 강의평가가 단기적인 방식을 취하고, 구체성이나 각 문항별 기준의 애매함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90년 2학기 강의평가에 참여한 교수자들의 의견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첫 학기의 경우보다 질문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강의평가가 대부분 예상했던 것과 큰 편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서의 공정성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강생, 학년의 편차, 전공의 상이성, 수업분위기 등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5. 教授講義評價에 대한 하나의 試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에 의한 교수강

의평가는 그 신뢰성·타당성·유용성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장점을 살려 시행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실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논의의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大學文化에 알맞은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강의평가제가 우리 대학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의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연구할 대상이다.

아래의 講義評價制의 시안은 경희대학교가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연구·검토하고 있는 基本方向이다.

① 초기단계에서는 강의평가의 실시 여부 및 평가항목 등은 전적으로 개별교수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이 제도의 공식화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초기에는 희망하는 교수에 한하여 자발적인 실시를 권장하여 이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강의내용을 재조직하거나 강의방법을 수정하는 등 교수개선 목적에 활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결코 승진이나 제임용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는 평가를 희망하는 교수 자신에게 평가결과 자료가 바로 송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강의평가의 실시대상도 교수 제량에 맞기 될 가능한 한 대학원생 또는 학부의 상급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부 저학년 학생들은 지적으로 경험이 미숙하고 강의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가 원하는 평가목적에 따라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흥미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④ 대학 당국은 강의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수에게 가급적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강의평가가 교수의 자질향상에 활용되도록 평가체제를 개발하고, 특히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닌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나아가 수업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연구하는 상설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맺는 말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의 인사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수의 강의내용의 충실과 개선을 위한 송환자료 수집에 목적을 둔다면 이 제도의 실시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보며, 교수 편에서 굳이 강한 저항감을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명분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각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각자 자율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나아가 학교당국에서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바로 교수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경우 ‘教授講義의 充實과 改善’이라는 차원에서 교수강의평가의 목적이 성취되리라 본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평가를 받는 교수들이나 배우고 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이 제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목적이 상호간에 이해되어 이 강의평가제가 우리 대학사회에 정착되면 이것이 언젠가 미래의 교수평가자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무방하리라 믿는다.

이제 이 글의 끝맺음을 하면서 미국 예일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모건(E.S. Morgan)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는 ‘예일대학교 신입생이 알아야 할 일’이란 글 속에서 교수를 교수답게 만드는 특질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자유로운 호기심의 추구’이고, 둘째는 ‘전달의 의무’라고 했다. 대학이란 이 호기심을 통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그 해답이 전달되는 곳으로 정의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여러 학생들의 질문과 해답

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한 우리 교수들의 질문과 해답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교수는 여러 학생들이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고 우리의 실력을 뚜렷이 드러내어 스스로 모른다고 자백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 겁나는 소리로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해 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를 계속 추궁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결함을 발견할 것이다.”

모건 교수의 말에서 보듯이 학생들에게 교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평가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군사부일체’만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면

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 안 하던 교수가 무능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교수가 연구 안 하면 학생과 더불어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

〈參考文獻〉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편, 『교육백서』.
 이성호(1991), “교수업적평가의 본질과 방법”, 『대학교육』, 53호.
 이종승(1992),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 『대학교육』, 60호.
 이해성(1992), “교수강의평가제의 새로운 모색”, 『대학교육』, 56호.